



8월말까지 제2회 연꽃축제를 여는 보성 대원사. 연꽃 100여종과 수련 108종을 관람할 수 있다.

“연꽃 만발하니 마음 풍성”

최근 연꽃축제를 기획해 일반인이 쉽게 사찰을 찾아 쉬어가도록 하고 있는 김계 청운사와 보성 대원사. 불교문화 불모지나 다름없는 지역의 사찰에서 여름내내 꽃을 피는 연꽃의 특성을 이용해 축제기간동안 각종 전시회와 문화공연을 마련해 큰 반응을 얻고있다.

지난해 하루 3000명 연인원 30여만명이 찾은 김계 청운사(주지 도원)는 금년에도 ‘하얀마음을 맑은세상’을 주제로 6월 27일부터

장의 탕화초본전. 탕화초는 탕화를 그리기 위한 초벌작업으로 이번 전시회에는 오방색 원지에 약간의 색채를 가미한 불, 보살, 달마 초본 20여점이 소개된다. (063)543-1246

보성 대원사(주지 현장)도 8월말까지 ‘제2회 연꽃축제’를 열고 있다.

대원사 연꽃축제는 ‘연꽃 생태사찰’을 테마로 각종 연꽃과 수생식물을 한자리에 만날 수 있는 자연학습장으로 기획했다. 연꽃생태사찰은 대원사를 칠지거림(七池

김계 청운사 ‘하소백련 축제’ 탕화초본전 열어 보성 대원사 ‘세계각국 수련’ 탕카 고승진영 볼만

터 8월 15일까지 하소백련축제를 연다.

3회째 맞는 하소백련 축제는 6월27일 소리꾼 장사익씨 콘서트를 시작으로 국악과 현대음악가들의 연주회, 퍼포먼스, 설치전 등 다양한 공연이 펼쳐진다. 또한 5000여평의 백련지에서 상설전시장을 설치해 서예(전육관), 시화(문충근 외), 탕화(도원 스님, 하늘새이강식), 사진전(선안 스님 외) 축제기간 내내 열리고, 백련어린이 미술제와 백련을 이용한 천연염색체험, 백련차 시음이 펼쳐진다.

특히 이번 전시회에서 주목을 끄는 것은 주지 도원 스님(전남도 무형문화재 27호 탕화

伽圖)으로 조성해 연꽃 100여종과 세계 각국에서 수집한 수련 108종, 50여종의 수생식물을 식재해놓았다. 축제기간동안에는 ‘하늘호수연꽃 명상캠프’ (7월3일)와 불교예술의 꽃인 ‘영산재’ (8월30일)가 이어진다.

또한 대원사는 연꽃축제를 기념해 경내에 자리한 국내유일의 티베트박물관에서 ‘고승진영전’과 ‘인도 이슬람 세밀화’ 전시회를 함께 열고있다. 이번에 공개된 고승진영은 티베트 탕카기법으로 조성된 초, 성철, 구산, 청화, 서용 스님 등 5분의 진영이다. (061)852-1755 이준엽 기자



탕카 고승진영전을 열고 있는 보성 대원사(왼쪽)와 탕화초본전을 갖는 김계 청운사의 도원 스님.



지금, 우리 곁에서...

흥천 연화사

부처님 품에 안긴 듯 편안한 절

“부처님 뱃속에 들어가 본 기분이에요?”

“극락이 따로 없더군요. 어머니 품에 안긴듯 좋았어요.”

6월 16일 강원도 흥천 연화사(주지 화담)에는 높이 36m(아파트 12층 높이)의 아미타부처님의 친견을 기다리는 참배객으로 북적거렸다. 20여 명이 먼저 부처님 몸안 7층 높이까지 올라가며 부모은중경·극락도·지옥도 등을 관람하고 내려오자, 기다리고 있던 다른 불자들이 줄을 지어 올라갔다.



지상 36m 높이의 연화사 아미타대불. 불상 안으로 들어가면 7층까지 올라가며 부모은중경, 극락도, 지옥도 등을 참배할 수 있다.

주5일 근무제 등이 확산되면서 연화사가 ‘포교 휴양 도량’으로 각광받고 있다. 인근지역은 물론, 멀리 대도시에서 온 시민들이 산수 아름다운 연화사에서 휴식을 취하며 일요법회에도 참석하고 있는 것. 연화사가 최근 전국에서 답지하는 관광객과 불자들을 위해 인근 연엽산(蓮葉山)을 활용한 숲체험 프로그램, 22개에 달하는 요사채 객실을 개방한 주말 템플스테이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36m 아미타 부처님, 숲체험 등 다양

지역단체 애경사에 절 공간 적극 개방

이런 사실이 입소문을 타면서 요새는 서울 대전 대구를 비롯, 멀리 부산에 서까지 관광버스를 마련해 연화사를 찾는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번 이곳을 다녀가는 사람들은 ‘연화사 매니아’가 되어 버린다는 것이 사찰측의 설명이다. 불자들을 위해 매일 초하루와 보름, 조계사, 청량리 로타리, 7호선 상봉역 등을 순환하는 관광버스도 운행 중이다. 또한 지역 단체들에게 생일, 결혼식, 회갑 모임으로도 활용할 수 있게 장소를 제공하고 있다.

연화사가 세워진 것은 지금부터 12년 전. 구리시 은선사에서 31년 동안 포교를 해온 주지 화담 스님이 수행기도 공간의 필요성을 절감하면서부터다. 서울시가 팽창하면서 은선사는 도심 포교당의 구실을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스님은 적당한 사찰 부지를 물색하던 중, 신라 말 도선국사

가 사찰을 건립하려 했다는 인연으로 ‘연합절골’이란 지명을 얻었다는 사실을 알고 이곳에 불사를 하기로 결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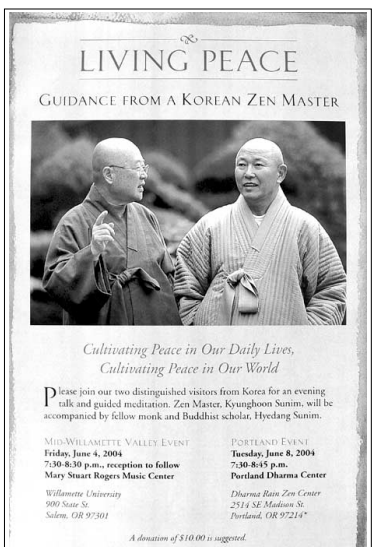
그때부터 대지 1만 2천평을 마련하고 연건평 680여 평 3층 규모의 법당과 삼성사, 한국 최대의 아미타불 봉안 불사를 차례로 시작했다. 올 가을에는 아연과 구리로 주조할 2000여간 아미타법종 불사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요즘 청소년들은 부모님에 대한 효 관념이 점점 희박해져 우리사회 효가 무너져나가고 있어 큰일”이라는 화담 스님은 “향후 연화사에 청소년수련센터를 개설해 청소년들이 심신을 단련하고 예절을 배워 효사상을 새롭게 고취시킬 수 있는 도량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033)433-1815

홍천=김유신 기자

★★★★★ 아마존닷컴 독자 최고평(별5개)

경훈스님 영문 선시집 선정



세계 최대 인터넷 서점 아마존닷컴(amazon.com)에 한국 선사의 시집이 독자평가에서 최고점인 별 5개를 받아 화제다.

이 책은 6월 4일 미국 IRIS출판사가 펴낸 <LIVING PEACE(살아있는 평화)>로 저자인 경훈 스님(전남 무안 약사사 조실)의 선시를 영문으로 출간한 책이다.

출판사 초청으로 10일간 미국 오리건주를 방문하고 6월 11일 귀국한 경훈 스님은 “출판 후 며칠만에 독자들에게 좋은 평을 받아 의외다”며 “물질문명에 지لول린 서구인들에게 부처님 가르침은 감로수가 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스님은 “몇해 전 맑은 마음으로 살고 싶은 생각에서 수시로 떠오른 선상(禪想)을 시집으로 정리했는데 이번에 영문으로 번역하게 됐다”며 “이 책을 통해 영어문화권에서 불교와 동양사상, 한국불교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6월 4일, 윌라메트(Willamette) 대학교 강당에서 열린 출판기념 특별강연에서 스님은 “이 세상의 존재는 모두가 필요한 조건 속에 하나도 버릴 수 없는 귀한 존재다. 풀 한포기, 먼지 하나까지도 다 필요로 하는 전체적의 조직이며 연속성의 역할이기에, 내 몸이 귀하듯 상대도 귀하다는 생각으로 살고 있다”고 산사에서의 생활을 소개했다.

경훈 스님은 또한 미국 방문기간 중 지역 교도소를 방문해 ‘사형, 무기수와의 대화’를 갖고 ‘참회와 사무량심으로 수행하던 당신도 부처가 될 수 있고 좁은 감옥에서도 해탈할 수 있다’고 불법을 설한 자 사형수들이 ‘참회의 눈물을 흘렸다’고 전했다.

한편 영문판 선시집 <LIVING PEACE>는 경훈 스님의 선시를 해당 스님(담양 금타선원)이 영문 번역한 것으로 미국 대학에서 종교학 교수로 지낼 때 인연맺은 출판사 대표 모리스 박사의 원력으로 출판됐다. 이준엽 기자

담양 용흥사, 주말수련회 열어

담양 용흥사(주지 진우)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산사체험, 주말수련회’를 개최한다.

‘산사에서 편하게 머물다 가는 쉼터’를 주제로 6월 26일(토) 오후 3시 입제식을 갖는 수련회는 매주 토, 일요일 1박2일 일정으로 진행된다.

일반인에게 산사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용흥사 주말수련회는 주지스님이 강독하는 경전강의, 참회장전, 담련(불교토론 및 상담), 참선, 포행(산행), 다도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061)382-0574 이준엽 기자

장흥경찰불자회 12일 창립

전남 장흥경찰서 불자회(회장 위성철)가 창립했다. 6월 12일 장흥 경찰서 불자 50여명은 보림사 대적광전에서 오계를 받고 불자회 창립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암도(前 조계계 포교원장), 영조(송광사 주지), 선경(양서 경승회장), 현광(보림사 주지) 스님 등 지역 스님들과 이병욱 장흥경찰서장, 불자 등 200여명이 참석해 불자회 출범을 축하했다.

수계식에서 암도스님은 법어를 통해 “계율을 생활화하는 불자가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이준엽 기자

고객의 행복한 여행을 추구하는 여행사

(주) 행복만선 Tel. 02)730-0705

삼보에 귀의 하옵고

당사는 중국과 제주도를 현지 직영

운영하는 전문 여행사로서

불자님을 위한 중국여행과 제주도 여행을

안내하오니 불자님들의 많은 성원을 기대합니다.

여름 특별기획안내 (호화유람선으로 이는 중국여행 및 사찰순례)

- ◎ 호화유람선 진천페리로 매주 화요일 출발
 - 천진, 북경 7일(피운사,와불사,웅화궁) ₩ 390,000원
 - 천진, 북경, 낙양 7일(소림사,백마사,응문석굴) ₩ 490,000원
 - 천진, 북경, 오대산 7일(운강석굴,화엄사,현통사) ₩ 590,000원
- ◎ 호화유람선 진천페리로 매주 금요일 출발
 - 천진, 북경, 내몽고 8일(호화호특) ₩ 520,000원
 - 천진, 북경, 패상초원 8일(포타라궁,보녕사) ₩ 520,000원
- ◎ 호화유람선 위동페리로 매주 목,토요일 출발
 - 청도, 제남, 곡부 6일(천불산 만불동,영암사,잠산사) ₩ 390,000원

☑️요금포함내역(공통사항)

- 포함사항 : 왕복 선박료, 호텔(4성, 4성 2인1실), 입장료, 여행자 보험, 항만세, 선내 다인실 기준, 전일정 식사 (선내 포함)
- 불포함사항 : 중국 비자비, 현지 가이드 기사 팀, 개인경비

중국 불교 성지 순례

1. 관음도량 보타 낙가산 5일 79만원
2. 지장도량 구화산 황산 5일 79만원
3. 보현도량 아미산 낙산 5일 85만원
4. 문수도량 오대산 운강석굴 5일 69만원
5. 소림사 백마사 응문석굴 5일 69만원
6. 달리이라마 티벳 8일 169만원

호화 유람선 선상에서 수록제 및 소원성취 방생 대법회 가능 (진행 및 인원 상담)